文대통령 집권 5년차 내각 정비 완성…'의원 입각' 절반 구성

정의용 외교부·권칠승 중기부·황희 문체부 장관 내정

'유일한 원년 멤버' 강경화 퇴장…새 국정 동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교체하는 3차 개각을 단행했다.

한 달 새 국무위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바꾼 점에서 국정운영 동력 회복에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은 앞서 지난해 말 단행된 '12·4 개각'과 '12·30 개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피로도가 쌓인 부처 장관에 대한 우선 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정 동력 확보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유일한 원년 멤버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퇴장도 잔여 임기동안의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풀이된다.

세 차례 내각 순차 개편…국무위원 절반 이상 물갈이

이날 3차 개각으로 지난 1개월 사이 국무위원(18명) 절반이 교체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4 개각을 통해 국토교통부(변창흠)·행정안전부(전해철)·보건복지부(권덕철)·여성가족부(정영애) 장관을 임명했다.

이어진 '12·30 개각'을 통해서는 법무부(박범계)·환경부(한영애) 장관 후보자 등 2명을 내정했다. 이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25일로 예정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 되면 6개 부처의 장관 교체 작업이 마무리 되는 셈이다.

여기에 이날 새로 발표된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더해 총 9개 부처의 수장 교체 과정이 한 달 이내에 모두 이뤄지게 된다.

2019년 7개 부처 장관을 한 번에 대폭 물갈이 했던 3·8 개각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러한 큰 폭의 내각 개편 작업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촉발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회복·도약·포용을 새해 국정운영 화두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풀이가능하다.

3차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과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면서 후속 개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18년 9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19년 4월,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2019년 9월부터 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부처 장관들의 '내구연한'에 따른 정책 피로감 해소를 위해 교체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속 개각 가능성에 대해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마무리, 또 후반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항상 검토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현역 의원 입각 비중 늘어…청문회 안정성, 장악력 확보 차원

이날 개각의 또다른 특징은 현역 의원 입각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권칠승 민주당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희 의원은 모두 20대 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한 현역 재선 의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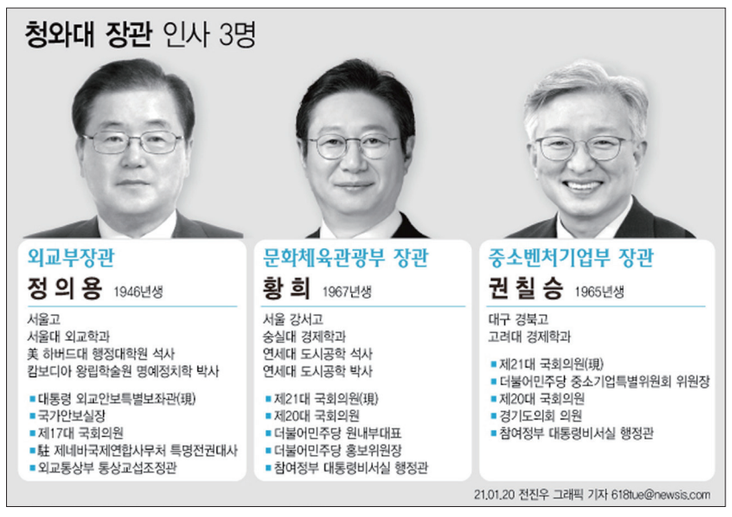
이들을 포함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18명) 가운데 38%(7명) 가량이 현역 의원 입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셈이다. 17대 국회에서 의원 경험이 있는 정의용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현역 의원 입각 비율이 높아진 것은 집권 후반기의 대표 현상 중 하나인 '구인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입각 제안에도 다수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부담을 토로하며 거절한 사례가 속출했다는 게 문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정부 여당이 도덕성 측면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식의 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

전·현직 의원을 발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인력난 해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 현역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물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외에도 현역 의원 입각의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부처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당정청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꼽힌다.

권칠승·황희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친문재인계'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돌려막기 식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야권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직)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 등 누가 적임자인지, 인선 기준에 따라 선정한 인사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 주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되는 가치 사이에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본권 존중을 우선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만큼, 단순히 또 하나의 기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장선 상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무죄선고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고 억울한 대상자에게 형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으로서가 아닌 수사기관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진욱 후보자는, 의지를 넘어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약 10억의 유상증자 중 약 5천만원을 참여해 '미공개정보 이용'의혹을 받았으나, 소 의원의 참고인 질의를 통해 상당부분 해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재 보유중인 주식을 "다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민주당, 전국 17개 시도 순회 '정책엑스포' 돌입

오늘 부산시작·27일 서울…8월 말까지 전국 순회 예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8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정책엑스포 일정에 돌입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일 전국을 순회하며 비전·정책을 제안하는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를 17개 시·도당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순회 정책엑스포는 '지역의 비전을 제안하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 경제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제·노동·복지·도시·교통·문화·관광·주거·의료·보육·교육 등 각 분야별로 지역밀착형 현안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정책엑스포의 첫발은 21일 부산에서 내딛는다.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과 부산시당 공동주최로 열리며 '부산의 비전을 제안하다'는 주제로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좌장을 맡고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부산 신항만과 신공항'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부산에 이어 오는 27일에는 서울에서 정책엑스포가 열린다. '서울의 비전을 제안하다'는 주제로 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박성준·이수진 의원이 진행과 사회를 맡고 각계 전문가들이 서울비전을 포함한 약 15개 주제의 정책제안을 사전 녹화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정책엑스포는 8월 말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